

나주 영산강 물들인 붉은 꽃물결...꽃양귀비 절정

20일 만개...홍어·한우축제와 함께 즐기는 힐링 명소 포토존·목재데크·무료주차장 등 관광객 맞이 완료

나주시가 영산강을 따라 펼쳐지는 대규모 꽃양귀비 꽃단지 시인과 관광객들에게 봄의 절정을 선사하며 '2026 나주 방문의 해'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

18일 시에 따르면 영산강 둔치와 들심 일원에 약 16만㎡ 규모의 꽃양귀비 꽃단지를 조성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이번 꽃단지는 안개꽃 사이로 붉은 꽃양귀비가 영산강을 따라 화사하게 펼쳐지는 것이 특징으로 20일 만개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들심 구간에는 붉은 꽃양귀비를 중심으로 분홍과 흰색 꽃양귀비를 혼합 식재했으며 올해 처음 도입한 노란 꽃양귀비까지 더해져 더욱 다채로운 봄 풍경을 연출할 예정이다.

강렬한 붉은 꽃물결 사이로 다양한 색감과 날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관광객 편의를 위해 포토존과 휴게 의자, 파라솔 등을 설치해 머물며 꽃



나주시가 영산강 둔치와 들심 일원에 약 16만㎡ 규모의 꽃양귀비 단지를 조성하고 관광객 맞이에 나선다. 꽃양귀비는 20일 전후로 만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제공=나주시청

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공간을 마련했고 인성 사진 촬영 명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 조망형 목재 데크를 조성해 관람과

촬영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방문객 접근성 향상을 위해 영산강 둔치체육공원과 들심 입구 일원에는

무료 주차장도 운영한다.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꽃양귀비를 감상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되는 '제22회 영산포 홍어·한우축제'와 연계해 꽃양귀비 꽃단지과 지역 대표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있어 더욱 풍성한 봄날들이 될 전망이다.

이동훈 안천도시건설국장은 "영산강을 따라 펼쳐지는 꽃양귀비의 붉은 물결이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과 힐링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나주를 방문해 아름다운 봄 풍경과 지역 축제를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담양, 지역 특성·주민 맞춤형 복지모델 체계 구축

주민 욕구 조사 등 현장 목소리 수렴

담양군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향후 4년간의 복지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첫걸음을 뒀다.

18일 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송강정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전담팀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

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는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정밀하게 분석해 담양만의 맞춤형 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했으며, 주민 욕구 조사와 초점 집단면접(FGI) 등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 오는 9월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협의체는 이날 회의를 통해 고독사와 자살 예방을 위한 조직 재편 및 전담 인력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의 안부를 확인하는 '이웃 사업' 등 민·관 협력 중심의 예방적 복지 모델 구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사회적 고립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안 키트를 지원하고 밀착 관리를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을 강화해 지

역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메워나갈 계획이다.

이정국 담양군수 권한대행은 "이번 계획은 급속한 고령화 등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지침이 될 것"이라며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군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사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해남, 여름철 재난 안전대책 조기 가동

10월 중순까지 운영...호우·태풍·폭염 대응

해남군은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에 대비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18일 군에 따르면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대응 체계 유지와 함께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예찰 강화, 폭염 취약계층 지원 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인명피해 우려 지역 10개소와 급경사지 87개소 등 재해 취약 시설에 대한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했다.

하천 및 읍내 배수로 준설 등 정비 조치를 신속히 이어가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등 주요 수리 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가동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침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기온 상승에 따른 폭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무더위쉼터 599개소와 그늘막, 쿨링포그 등 폭염 저감 시설에 대한 가동 준비를 마쳤다. 향후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살수차를 가동해 노면 과열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 기상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재난 정보 전파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마을방송과 긴급 재난문자, 군 공식 SNS 등 다각적인 홍보 채널을 활용해 기상 특보와 재난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전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은 철저한 현장 점검과 한발 앞선 대응이 최선의 대책인 만큼,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단 한 건의 인명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gwangnam.co.kr



함평군 대표 지역특화 작목인 '함평 미니단호박'이 본격 출하된다. 사진은 미니단호박 수확 모습. 사진제공=함평군청

함평 대표 지역특화 작목 '미니단호박' 출하

고당도·고영양...함평천지물 20% 할인

함평군의 대표 지역특화 작목인 '함평 미니단호박'이 5월 맞아 본격 출하된다.

18일 군에 따르면 함평 미니단호박은 일반 단호박보다 크기는 작지만, 당도가 훨씬 높고 영양이 풍부해 매년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깨끗한 황토에서 풍부한 일조량을 받고 자란 함평 미니단호박은 식감이 부드럽고 밤처럼 포근한 맛이 특징이다.

베터카로틴 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노화 방지 및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 식품이나 유아 유식, 영양 간식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군은 시설재배를 통한 조기 출하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 단호박 수확 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시장을 선점해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온라인 쇼핑몰인 함평천지물에서 농특산물 20% 할인 행사(최대 5만원)를 진행하고 있다. 이곳에서 갓 수확한 싱싱한 미니단호박을 할인된 가격으로 간편하게 만나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함평 미니단호박이 소비자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함평=최일근 기자 6263739@gwangnam.co.kr



장흥군은 최근 부군수실에서 월암 김선보 서예가의 작품 70여점에 대한 기탁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장흥군청

월암 김선보 작가 작품 70점 장흥군에 기증

지역 문화자산 가치 높여

장흥군은 최근 부군수실에서 월암 김선보 서예가의 작품 70여점에 대한 기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탁은 지역 예술인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장흥을 향유할 수 있는 김선보 작가가 평생 정진해 온 예술적 성과를 고향의 공공자산으로 환원하고 주민들과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월암 김선보 작가는 1937년 장흥에서 태어나 장흥군과 영광군청에서 공직 생활을 한 정통 행정이 출신 서예가다. 공직 생활 중에도 붓을 놓지 않았던 그는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전남도미술대전 초대작가, 광주시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을 역임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구축해왔다.

특히 김 작가는 '서예의 기본은 올바른 마음가짐인 서도에서 시작된다'는 철학

아래, 구수를 바라보는 나이에도 매일 심신을 단련하며 금강경 5183자와 반야심경 214자를 일일히 써 내려가는 등 왕성한 작품 활동과 뛰어난 필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기탁된 작품 70여점은 한자의 전서, 예서, 해서, 행서, 초서 등 오체는 물론 한글 서체까지 아우르며 작가의 폭넓은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수준 높은 작품들로 구성됐다.

김선보 작가는 "평생 붓과 함께하며 담아낸 마음들이 고향 장흥의 후배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고, 주민들의 삶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평생의 예술혼이 담긴 소중한 작품들을 조건 없이 기탁해주신 작가께 감사하다"며 "기탁받은 작품들을 지역의 소중한 문화컨텐츠로 활용돼 주민들과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jms050311@gwangnam.co.kr

고흥로컬푸드직매장, 개장 50일만 1만 돌파

신선 농산물 당일 수확·판매 원칙...소비자 만족도 높아

고흥군은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이후 폭발적인 호응 속에 개장 50일만에 누적 이용객 1만명을 돌파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성과는 개장 한 달 만에 누적 매출액 1억원을 달성한데 이은 또 하나의 값진 기록이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단기간에 건강한 먹거리 공급처로서 주민들의 일상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러한 흥행 비결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신선 농산물을 당일 수확·판매하는 원칙을 유지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 점이 주요했다.

특히 중간 유통단계를 과감히 줄여 생산자에게는 정당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품질 농산

물을 제공한 점이 로컬푸드 본연의 취지와 맞물리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매장에서는 계절을 맞춘 양파,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등 신선한 농산물과 된장, 고추장 등 전통 장류를 비롯해 꿀, 참기름, 들기름, 석류청, 유자 가공품 등 고품질의 정성을 담은 다양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용객 1만명 돌파는 우리 지역 농업인들의 정직한 땀방울과 주민들의 따뜻한 성원이 만든 결과"며 "앞으로도 고품질 로컬푸드 직매장이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광양,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 추진

서산교~배교포대리 일원 불법행위 단속

광양시가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천 만들기에 나선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광양읍 서천 일원에서 야영과 취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일부 이용자들의 장기 야영과 취사 행위로 소음과 쓰레기 투기, 시설물 훼손 등 민원이 이어지면서 일반 시민들의 이용 불편이 커진데 따른 조치다.

단속 대상 구간은 광양읍 칠성리 599-2번지 서산교 아래부터 덕례리 1555번지 배교포대리 앞까지 약 460m 구간이다.시는 시민들이 단속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구간에 현수막과 안내표지판 설치를 완료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텐트·그늘막 설치 등 야영 행위, 불을 피우거나 음식을 조리하

는 취사 행위, 하천 내 각종 시설물을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변형하는 행위 등이다.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하천법 제46조 및 제9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최대 300만원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계도 활동을 통해 하천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서천은 특정 개인이 아닌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다"며 "쾌적한 하천 환경 조성과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양=김귀진 기자 kkkjin@gwangnam.co.kr